

## 아메리카 '정복' 과정 속의 (불)소통과 단절

강 성 식  
서울대학교

강성식 (2012), 아메리카 '정복' 과정 속의 (불)소통과 단절.

**초 록** 이 글은 '정복' 과정에서의 (불)소통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 정복자들은 스페인에 자신들의 공적이나 아메리카의 부와 열등성 등에 대한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고서를 올리고 그 결과 유럽에서는 각종 그릇된 믿음들이 생겨났다. 반면 식민통치자들은 본국의 명령을 현지 사정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복종은 하지만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소통의 왜곡을 일으켰다. '정복'은 상이한 문화 간의 갑작스런 충돌 과정이었기 때문에 불소통 상황은 필연적이었다. 물론 스페인인들 측에서의 소통 노력도 있었지만, 그 소통은 일방적이고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부 논자들은 아메리카인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여겼다는 주장이 원주민들의 겸손한 환영의 말에 담긴 수사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주민의 정체성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상호 적대적이어서 소통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는데, 스페인인들이 그 점을 정복에 이용했다. 두백 아마루 2세나 두백 까다리의 봉기가 실패한 한 원인도 상호 경쟁적인 원주민들 간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에 있었다. 또한 식민당국자와 대중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던 꾸라까 계층이 식민통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식민정책은 잘 작동한 반면 그들이 일반 대중과 공감한 경우에는 봉기의 주체가 되어 식민 질서를 위협했다.

**핵심어** 과장, 단절, (불)소통, 왜곡, 정복

## I. 시작하며

스페인의 아메리카 진출은 전혀 생소한 두 문명의 갑작스런 만남과 충돌의 과정이었다. 서로 상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주체들의 조우였기에 두 지역 사람들은 상대와 소통을 할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첫 만남의 과정이었던 콜럼버스 항해시기부터 현지 원주민들을 납치해서 스페인으로 데려가 통역관으로 양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소통을 향한 스페인 측의 노력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일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인들 간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언어가 서로 달랐기에 초기 카리브 인근 지역이나 중미 서해안 지역에서 납치해간 사람들로는 잉카인들은커녕 아스텍아인들과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 통역들의 스페인어 습득 기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타 부족과의 언어 소통 가능성도 의심스럽긴 했으나마 스페인 측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출현 당시까지도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해 인식도 못하고 있던 각 지역 원주민 입장에서는 대비라는 말 자체가 가당찮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만남 초기의 두 문명 간에는 불가피하게 불소통 그리고 그로 인한 오해와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레스탈(Matthew Restall)은 ‘정복’과 관련된 7가지 오해를 다루면서 그 중 한 가지를 이 (불)소통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기 스페인인들은 자신들이 원주민과 소통이 잘 되었다는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 낸 반면, 현대 역사가들은 정반대로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은 거의 소통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2004, 77-99).<sup>1)</sup> 하지만 탐험 및 ‘정복’ 과정에서 양자 간에 소통이 원활한 경우보다는 불소통의 상황이 더 빈번한 경우였고 또 그 불소통이 ‘정복’에 더 핵심적인 변수가 되었으리라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인식

1) 이때의 신화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이야기’로서의 신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릇된 믿음’ 정도의 의미이다.

을 같이 하리라고 본다.<sup>2)</sup>

그런 (불)소통은 비단 초기인 탐험기와 ‘정복기’에만 그리고 스페인과 원주민 사이에만 존재했던 문제가 아니었다. 즉 단순한 언어 차이에 의해서만 불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소통의 문제가 존재했다. 아메리카 현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 상호간의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 스페인 본국과 아메리카 현지의 스페인인 간에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에 본국과 현지의 탐험대나 ‘정복자’, 식민통치자 사이에도 (불)소통 문제가 놓여있었다. 또한 우리는 흔히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당시 원주민은 서로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로 나뉘어 있었다. 그들 간 상호 교류가 거의 없어서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나아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상호 간 담론이 충돌하고 있어서 사실상 소통의 부재 상황에 놓인 경우 역시 존재했고 그 상황은 ‘정복’과 식민통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글에서는 ‘정복’ 및 식민통치와 관련해 소통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불소통과 단절 혹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거나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킨 왜곡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주목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아메리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정복’에 대해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던 내용이나 혹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내용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만약 지금 우리가 흔히 사실로 알고 있는 일들 중 일부라도 불소통으로 인해 생겨난 오해일 경우, 이 작업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정

2) 여기서의 ‘정복’은 많은 경우 ‘정복’ 초기를 염두에 두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1519-1521년 아스페까의 ‘정복’이나 1532-1533년 안데스에서의 ‘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진 긴 과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복’을 의미한다. 실제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세기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곳이 존재했다. ‘정복’을 그 같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아메리카 ‘정복’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우리들의 무의식적 인식에 대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복 이야기'를 상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업은 우리와 기존 '정복사' 간 소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스페인 본국과 아메리카 현지 스페인인들 간의 (불)소통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의 (불)소통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민들 간의 (불)소통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글은 패자인 원주민의 입장을 무시한 유럽 중심의 '정복 이야기'와 새로운 가능성의 '정복 이야기' 간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논의 과정을 통해 '정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보려고 한다.

## II. 스페인 본국과 아메리카 현지 스페인인 간의 (불)소통

스페인과 아메리카 현지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소통의 방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탐험대와 '정복자'들이 본국을 향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국에서 아메리카 현지 스페인인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신대륙'과 유럽의 소통은 스페인 국토수복 전쟁 과정에서 생겨나 아메리카 탐험과 '정복' 과정으로 이어진 보고 관행, 즉 새로 '발견'된 대륙에 대해 본국으로 각종 보고서를 올린 전통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의 목적 중 하나는 보고서를 올리는 당사자의 공을 부각시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보고에는 언제나 왜곡과 과장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당시의 탐험대나 '정복대'는 국토수복 전쟁 당시의 후원(patronage) 제도를 통해 충원되었고, 후원자와 피후원자는 기본적으로 호혜주의에 입각한 상호 이익 추구라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복'이라는 벤처사업에 있어서는 땅이나 인간의 확보에 앞서 금이나 은과 같은 재물의 확보가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초기 '정복대'가 가톨릭 전파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적을 내세웠지만 두 목적이 충돌하는 상황일 경우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사례들이 일반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또한 계약과 보상이라는 원칙은 후원자를 확보하고 안심시켜야 할 필요성을 낳았고 그 결과 탐험대나 ‘정복자’들은 현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부가 많다고 과장하곤 했<sup>3)</sup> 해당 지역이 채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정복’ 완료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허허벌판인 지역에 도시 건설을 선언하고 그곳에 이미 도시가 건설된 것처럼 보고 하는 경우도 흔했다.<sup>4)</sup> 것처럼 과장 혹은 왜곡된 보고는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정복’ 초기에 확보된 다량의 약탈 금붙이와 안데스 지역 태양의 신전들을 비롯한 각 신전에 쌓여 있던 어마어마한 재물은 ‘엘도라도(El Dorado) 신화’ 같은 것을 형성시켰고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Utopia』를 탄생시켰다.<sup>5)</sup> 그리고 그런 신화들은 일부 유럽인들로 하여금 탐험이나 모험을 일삼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 각종 전염병균을 탑재한 최첨단 복합 생화학 무기였던 그들이 오지로 들어가도록 자극함으로써 아메리카 내륙 깊숙이 복음 대신 죽음을 전파하는 비극을 낳았다.<sup>6)</sup>

본인들의 공적을 과장했던 ‘정복자’들은 원주민과 관련해서는 정반대로 열등성을 부각시켰다. 가령 꼬르페스의 경우 야만족인 여러 원주민들이 문명의 전도사인 ‘정복대’에게 자발적으로 복속당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언급을 아주 빈번하게 하고 있다. 원주민에 대한 그 같은 폄훼는 필연적으로 왜곡된 원주민 상을 낳게 된다. 그 한 예로 남미 북부 해안지방에는 어깨에

3) 가령 몬테호(Montejo)는 유카탄 지역에 금이나 은이 많아서 그곳을 ‘정복’ 할 가치가 있다는 설득의 편지를 왕에게 보냈다.

4) 꼬르페스에 의한 베라크루스 시 건설이 대표적인 한 예에 해당한다. 꼬르페스는 자신의 후원자이자 쿠바 총독이었던 벨라스게스를 배신하고 새로운 권위를 창출하기 위해 베라크루스를 하나의 도시로 선언하고, 그 도시의 의회로 하여금 자신을 시장 겸 군대의 수장으로 임명하게 했다. 그로써 꼬르페스는 왕으로부터 그 권위를 직접 부여받은 공식적인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5) 빠사로보다 30년 전 토마스 무어는 잉카를 『유토피아』의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Kenneth J. Andrien and Rolena Adorno 1991, 73).

6) 초기의 대표적 엘도라도 원정대는 1541년에 조직된 곤살로 빠사로(Gonzalo Pizarro)의 원정대였다. 잉카 ‘정복자’ 프란시스코 빠사로(Francisco Pizarro)의 의붓동생인 그는 끼또에서 원정대를 꾸린 다음 역시 신화 상의 ‘계피의 땅’ 을 거쳐 아마존 일대를 헤맨 끝에 16개월 만에 원정대 상당 부분을 잃고 안데스로 귀환했다.

눈이 달리고 입은 가슴 중간에 위치하며 모발이 어깨 중간에서 길게 자라는 부족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더 나아가 두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테오도르 갈레(Theodor Galle)가 1575년에 그린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아메리카 상륙’이라는 그림에는 유럽인들에게 널리 퍼진 그 같은 오해의 한 양상이 형상화되어 있다. 먼저 나신의 여성과 이상한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문제는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원주민들이 사람 다리를 꼬챙이에 꿰어 구워 먹는 끔찍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물론 일종의 제의적 행위, 의례적 행위로서의 식인 풍습이 아스떼카 지역에 일부 있었지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전체를 식인종이라는 야만적 이미지로 매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와 관련해 1521년 꼬르페스가 페노츠미틀란을 재공격할 때의 상황은 다소간 역설적이다. 당시 포위당해서 초근목피마져 구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던 페노츠미틀란인들은 인육을 먹지 않은 반면 꼬르페스와 동맹을 맺고 그 도시를 공격했던 원주민들은 의례가 아니라 거의 일상 식사에 가깝게 상대방 포로나 시신의 인육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르페스는 그 일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 오히려 스페인인들이 원주민들의 식인을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sup>7)</sup> 또한 카리브 지역이나 아스떼카 원주민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는 보고도 흔히 보이지만 원주민들 내부에서도 동성애는 일종의 죄악이었으며 상당 경우 처벌 대상이었다(꼬르페스 2009, 66 주 63번 참고). 잉카 가르실라소(Inca Garcilaso)도 안데스 지역의 잉카들은 식인 풍습과 더불어 남색을 절대적으로 금했다고 말하고 있다. 원주민들에 대한 그 같은 악의적 정보 왜곡은 오늘

7) 라스 까사스(Las Casas) 신부는 오늘날의 과테말라 지역을 언급하면서 스페인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데려간 많은 원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므로 식인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2007, 69). 그 같은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은 페노츠미틀란 공략이 길어진 탓에 꼬르페스 동맹군 원주민들의 식량 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그 사태가 원주민들 간 증오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빚어진 일로 보인다. 물론 페노츠미틀란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식인 행위를 금했다.

날까지도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벨기에 출신 삽화가 헤르게(Hergé)는 1949년 ‘태양의 포로들’이라는 작품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고질적 시선, 왜곡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은 마야인들이 일식, 월식을 모르던 미개인이었고 그 무지함을 이용한 백인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같은 그릇된 믿음이 유럽인들에게는 물론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재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이야기가 라틴아메리카 어린이에게도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것처럼 ‘정복’ 당시의 왜곡된 원주민 상은 오늘날까지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역사나 사실을 변질시키고 있으며 유럽 중심적인 편향된 시각을 우리는 물론 심지어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까지 주입시키고 있다. 이에 과거 마야 지역 출신인 몬테로소(Monterroso)는 「일식 *El eclipse*」이라는 미니픽션을 통해 그 백인의 심장이 제단에 바쳐지고 바로 옆에서 한 원주민이 일식과 월식에 해당하는 날짜들을 암송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같은 왜곡을 뒤집어 놓고 있다.

그에 반해 ‘발견자’나 ‘정복자’인 콜럼버스나 꼬르페스, 빠사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하게 영웅화되고 신화화된다. 유럽인들의 영웅인 콜럼버스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뒤집어 놓고 보자면 사실 아메리카에 처음 간 사람도 탐험가도 아닌 그저 재물에 눈먼 장사치일 뿐이다. 그 같은 의도적 영웅화 과정의 일례는 꼬르페스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보고서를 통한 꼬르페스의 자화자찬 및 과오 숨기기는 스스로를 거의 초인 수준에 올려놓고 있으며, 사아군(Sahagún)은 그의 연대기 『누에바 에스빠냐 문물 일반사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의 일부를 고쳐가며 꼬르페스를 미화했는가 하면(Matthew Restall 2004, 15), 고마라(Gómara)나 베르날 디아스(Bernal Díaz) 역시 거의 무조건적으로 꼬르페스를 찬양하고 있다.<sup>8)</sup>

나아가 꼬르페스 말년에 그의 집에서 자주 어울렸던 세풀베다(Sepúlveda)

8) 이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연대기 기록을 빌어 와 기술하기도 했다. 즉 그릇된 기록이 연대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의미다.

는 ‘정복’을 ‘고귀하고 용맹한 꼬르페스’와 ‘소심하고 비겁한 목떼수마’로 요약하며 꼬르페스를 영웅시한 반면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Matthew Restall 2004, 15). 하지만 아스페까나 안데스 ‘정복’ 당시의 ‘슬픈 밤’ 이야기와 ‘기나긴 밤’ 일화는 꼬르페스나 빠사로 일행의 영웅성이나 ‘정복’의 정당성에 대한 신화, 즉 유럽인들의 우월성이나 신의 섭리에 의한 ‘정복’이니 하는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IV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꼬르페스나 빠사로 ‘정복’의 경우 사실상 소수 스페인인들이 원주민들 간의 내분에 개입해서 그 공을 가로챈 감도 없지는 않다. 또한 1532-1560년 사이의 안데스 ‘정복자’들이 자연사한 경우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역시 유럽인의 영웅시가 자기 미화라는 왜곡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것처럼 유럽 중심의 왜곡된 이미지 유포는 라스 까사스 신부나 모톨리니아(Motolinía)처럼 원주민 옹호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책이 거의 20세기가 가까워질 때까지 출판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낳았다. 요컨대 초기의 왜곡된 보고는 아메리카에 대한 허황된 소문을 낳았고 동시에 초기 탐험대나 ‘정복자’의 위상을 신화화함으로써 왜곡된 ‘정복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 문명 발전이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는 사상, 즉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환상이 기정사실화 되었고,<sup>9)</sup> 그 환상은 다시 칸트의 계몽사상이나 헤겔식의 단선적 발전론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특히 사회 진화론을 만남으로써 ‘서구의 우월성’이라는 신화 날조에 이용되었다. 즉 모든 부문에서 유럽 것들을 정점에 세운 다음 다른 지역의 것들을 그 하위에 일렬로 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가령 종교의 경우 애니미즘-다신론-단일신론-유일신론으로 진화했으며 따라서 서구에 익숙한 종교인 기독교나 유대교 혹은 이슬람교가 제일 발전된 종교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이론을 낳기까지 했다. 미국의 정치나 경제, 사

9)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곳을 기준으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었다.



회 제도가 가장 발전된 것이므로 미국은 그 선진 제도를 세계 곳곳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는 ‘명백한 운명론’ 역시 그 같은 사고와 기독교 선교 논리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하지만 두셀(Dussel)은 문명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음을 지적하면서(2011, 115) 그 같은 논의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아메리카로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스페인의 아메리카 진출 당시 교황청은 가톨릭 전파를 대가로 새로이 발견된 땅과 인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식민화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바로 그 사실은 ‘정복’을 경제적 부의 획득 추구라는 ‘사업’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국토수복 전쟁 과정을 거치며 힘겹게 그 권위를 세워왔던 스페인 왕실은 자신들의 손길이 직접 미치지 어려운 머나먼 영토에서 그 신민이 지나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용인하기 싫었다. 그래서 초기부터 스페인 왕실은 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이어서 왕실의 이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정복’ 과정에 항상 왕의 관리를 동행시켰다. 또한 펠리페 2세는 1575년에 부왕이나 아우디엔시아(Audiencia)의 판사들이 관할 구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왕실은 국왕의 관리가 관할 구역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분리되는지 예의 주시함으로써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막으려고 했다. 나아가 스페인 왕실은 아메리카 현지인에 대한 작위 수여에 인색한 편이었고 그 결과 식민시대 내내 아메리카 현지의 작위 귀족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스페인 왕실의 뜻이 아메리카 현지에 적절하게 전달되고 이행되지는 않았다. 아메리카의 사회 조직은 왕실의 명령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아메리카 현지의 스페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통을 왜곡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때로는 혼자 과도한 전리품을 챙겨서 부하들의 원성을 샀던 꼬르페스나 동업자 알마그로(Almagro)의 몫을 가로채 다시피 했던 빠사로가 그 사실을 숨기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던 경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귀족 계층의 성장을 막기 위한 왕실의 의도는 아메리

카의 부가 소수의 현지 스페인인에게 집중적으로 축적되는 일을 예방하려는 조치로도 이어졌다. 그 한 방안이 장자 상속에 필요한 허가증을 지나치게 많이 내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장자 상속을 통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메호라(mejora)라는 제도를 통해 부모가 여러 자식 중 원하는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법이었다. 이처럼 본국과 식민지는 서로 소통하며 호혜주의를 실천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어긋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적할 만한 사실 한 가지는 당시 스페인의 계약 관계를 관통하고 있던 핵심적인 신념이 공동체의 안녕은 통치자와 피치자 간 계약의 적절한 기능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계약 관계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항은 허용된다는 분위기였다(Elliott 2006, 131). 그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대표적인 입장이 국토수복 전쟁 중 바스크 지방에서 유래되어 관행으로 굳어진 ‘복종은 하지만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태도였다.

본국의 명령이 아메리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그런 지침이 아메리카 현지의 여러 가지 특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도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왕실에서는 식민지를 ‘스페인 공화국’과 ‘원주민 공화국’으로 분리하고자 했지만 점차 수가 늘어나고 있던 메스피소의 등장이 말해주듯 두 공화국의 분리는 유지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하지만 소통의 굴절을 일으키고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메리카 현지의 이해 관계였다. 가톨릭 국왕 부부는 제국의 신민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예화를 원칙적으로 금하면서도 식인종 그리고 가톨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정당한 전쟁’의 포로는 노예화를 허용했다. 그런데 그 예외 단서는 무분별한 노예화 방지책인 통첩문(requerimiento)을 노예 양산의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하도록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 이에 까를로스 1세가 1542년의 신법(新法)을 통해 ‘정당한 전쟁’의 포로일지라도 노예화하는 것을 금했지만 현지에서는 필요에 따라 노예화가 지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16세기 중반 안데스 지역의 은광 노동력이 대대적으로 요구되던 시점에 원주민 인구가 급감

하면서 엔코미엔다(encomienda)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자 식민당국은 본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현지 사정에 맞춰 수정하기까지 했다.

그와 함께 본국과 아메리카 간의 먼 거리로 인해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소통의 공백기도 문제였다. 당시의 소통 과정은 필요할 경우 마다 원활하게 주고받는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인 전달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560년대만 해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와 리마 간에 소식이 보내져서 답변을 받는 데 약 2년이나 걸렸다. 따라서 아메리카 현지에서는 그 2년 동안 사실상 소통의 진공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식민지들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페루 부왕령의 경우 관할 하에 있던 파라과이 총독과 소통하는 것보다 마드리드와 소통하는 것이 더 쉬웠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소통 부재로 인해 아메리카 현지의 식민자들이 일부 자율권을 누리고 자율적 지침에 따라 행동했던 일은 당연한 결과였다. 잉카 가르실라소에 따르면 안데스 강제 노역 제도인 미따(mita) 정책과 원주민 강제 이주를 통한 소읍 조성 사업으로 원주민 공동체인 아이유(ayllu)를 파괴하고 잉카왕 뚜팍 아마루(Tupac Amaru)를 처형한 톨레도(Toledo) 부왕이 고국으로 돌아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도 스페인 국왕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977 III, 874-875). 즉 잉카왕들을 죽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냈는데 파국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기 때문에 기대 밖의 대우를 받은 톨레도가 낙담한 것이 죽음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것처럼 안데스에서 16세기 톨레도의 개혁 정책에 대한 원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따끼 옹고이(Taqui Ongoy) 운동 같은 원주민 봉기가 번져갔던 일이나 18세기 현지 사정을 무시한 막무가내 식의 부르봉 개혁이 진행됨으로써 전면적인 저항을 불러온 일도 부분적으로는 식민지와 스페인 본국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양측이 상황을 상이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었다.<sup>10)</sup>

10) 이런 저항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물론 위의 언급이 스페인인에 의한 아메리카에서의 일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 가톨릭과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언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메리카에서 그 같은 소통의 일방성은 원주민들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이기적 요구사항 전달의 성격을 띠는 통첩문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스페인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1512년 법학자 후안 로페스 데 빨라시오스 루비오스(Juan López de Palacios Rubios)가 작성한 악명 높은 통첩문은 기독교 교리와 인간의 역사를 요약한 다음 교황이 전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는 점, 새로이 발견된 땅이 스페인 왕의 소유라는 점, 스페인 왕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전쟁’을 해서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통첩문 낭독 과정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존재인 공증인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통첩문 낭독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자의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들이 말하는 지배권, 소유권, 노예화 권리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원주민들의 경우 그들의 입장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어 권리는 없는 상태로 일방적인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나마도 통첩문이 원주민에게 낭독되는 과정에서 소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 벌어졌다. 통첩문의 낭독 과정에 통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흔했고, 때로는 아주 먼 거리에서 읽기도 했고, 빈 마을에서 읽었는가 하면, 또 때로는 통첩문을 낭독하지도 않고 원주민들이 복종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했다.<sup>11)</sup> 때문에 라스 까사스 신부는 『인디아스 역사 *Historia de las Indias*』에서 그 어처구니없는 통첩문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Matthew Restall 2004, 87). 어쨌든 스페인인들 입장에서 원주민들이 통첩문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면, 즉 그 내용에 대한 원주민들의 파악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나면

11) 1519년 10월 18일 출몰라에서 벌어진 꼬르페스의 학살이 통첩문 낭독 없이 진행된 비극적 사건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는 잉카 제국의 패배 이유를 무기보다는 펠리빠요의 잘못된 통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성경’ 이야기를 부정하면서 아따왈빠(Atahualpa)가 성경을 던지지도 않았고 발베르데(Valverde) 신부가 그렇게 유도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오늘날의 에콰도르 뿌나 섬 출신인 펠리빠요가 어렸던 데다 잉카 제국의 일반 언어도 스페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어진 마찰이었다고 한다.<sup>13)</sup> 톨레도 부왕기에는 심지어 의도적 통역 왜곡의 사례도 발견된다. 안데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톨레도에 맞섰던 바로스(Barros) 판사는 뚜박 아마루의 ‘반란’ 혐의가 부왕의 지시에 따른 그릇된 통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가 찾아낸 통역은 고의적 통역 오류를 자백했고 이에 부왕은 그 통역에게 남색 혐의를 씌워 화형에 처하고 만다. 그래서 와망 뽀마(Guaman Poma)는, 잉카 가르실라소와는 달리, 톨레도가 1582년 본국으로 소환되어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진지한 소통의 노력 역시 없지는 않았다. 초기에 아스페까나 마야 지역에 건너간 일부 성직자들은 원주민들의 ‘성스러운 책’인 고문서(códice)들을 악마가 깃든 것이라고 해서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지만 머지않아 우선 그것을 이해해야만 우상이나 사교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주민어를 배우는 편이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원주민어를 익혀 원주민의 전통적 세계관이나 신앙, 역사, 관습을 발굴하

13) 잉카 가르실라소에 의하면 펠리빠요는 당시 갓 22살 남짓이었고(그의 이름이 축소사인 이유도 바로 어린 나이 때문이다) 그 잘못된 통역에 악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는 『페루 통사 *Historia general del Perú*』(1977, 1권 76-80) 참고. 한편 루이스 미요네스(Luis Millones)는 펠리빠요가 파나마 태생이라고 한다(2000, 86 참고). 펠리빠요가 뿌나 태생이든 파나마 태생이든 통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듯하다. 일단 출신 지역이나 나이 상 잉카 제국의 일반 언어에 능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잉카 제국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더구나 그는 1528년에 빠사로에게 잡혀가서 1529년에 스페인으로 건너갔고 1531년 빠사로의 원정에 따라 나섰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낯선 곳으로 끌려 다닌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짧은 기간에 스페인어를 제대로 익혔을지 의문이다. 초기의 여타 통역들도 스페인어를 배운 기간이 두어 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선교사들에게 건넨 첫 인사, ‘존경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기, 무지한 우리는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두셀 2011, 189).’의 화법은 목떼수마가 꼬르페스를 처음 만나 건넸던 인사 ‘저의 주인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지치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 멕시코 시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신이 도착하신 이 양탄자와 옥좌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을 위해 잠시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John Bierhorst 2003, 19).’의 화법과 꽤나 유사하다. 두셀이나 메튜 레스톨은 타자를 존경하고 여유를 주는 그 같은 인사 방식이 지금까지도 전해져오는 아스떼카의 전통적 수사법이라고 한다(두셀 2011, 189, Matthew Restall 2004, 97). 또한 엘리엇 역시 아스떼카인들 특유의 호의와 환영 인사에 불과한 말을 스페인인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해했을 개연성을 본다(2006, 5). 안데스의 경우도 그와 유사했다. 안데스인들도 스페인인들을 신, 즉 위라꼬차(Wiracocha)로 받아들였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거기에도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주었으면 하는 스페인인들의 오해와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호세 데 아코스타(José de Acosta) 신부가 원주민들이 스페인인을 위라꼬차라고 불렀다고 기록했는데, 아스떼카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데스에서도 많은 연대기들이 서로 내용을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백인을 신으로 여겼다는 말이 스페인인 측의 ‘정복’ 정당화 의도로 유포되어 후에 일반화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데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했는데, 그 중에서 죽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다소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존재를 위라꼬차라고 칭했다. 오늘날 안데스 지역에서 신적 존재가 아닌 특권적 권력자라는 의미에서 위라꼬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복’ 초기부터 스페인인들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보았다는 증거도 나타난다. 아파왈빠의 조카이자 연대기 작가인 띠투 쿠시 유빵끼(Titu Cusi Yupanqui)는 원주민들이 백인들을 신이 아닌 ‘위라꼬차가 보낸 사람’으로 간주했다가 이내 악의 자식들로 간주했다. 그런데 그 같은 종교적인 언급들이 문화 차이

에 의한 번역상의 문제 혹은 오류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로 둔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Matthew Restall 2004, 116-117). 한편 수이데마(Zuidema)는 스페인인을 위라꼬차라고 부르게 된 원인을 안데스 전통 사상에서 찾고 있다. 안데스에서 위라꼬차와 태양신은 대립관계로 위라꼬차는 아래를 의미하는 우린(hurin)과 연결되고 태양신은 위를 의미하는 아난(hanan)과 연결되는데, 백인들이 아래쪽인 해안지역에서 나타난 까닭에 그들을 위라꼬차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Ossio 1973, 166-167). 이상의 사실들 그리고 아스페카 지역과 안데스 지역에서 공히 유사한 ‘정복’의 전조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원주민들이 백인을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말도 징조 신화와 더불어 나중에 발명 혹은 창조되어 의도적으로 유포된 소문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복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원주민의 인식이 미개하다고 평가 절하했던 스페인인들의 일방적 경향에서 비롯된 곡해의 결과가 된다.

안데스의 경우 아파왈빠가 성경을 바다에 내동댕이침으로써 ‘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보편화된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아파왈빠는 성경을 집어던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의 불경에 해당하는 무례를 범한 것이 된다.<sup>16)</sup> 그런데 띠뚜 꾸시 유빵끼에 따르면 아파왈빠가 스페인인 중 한 명에게 황금 잔으로 음료를 건넸는데 그 스페인인이 음료를 땅바닥에 부어버렸다고 한다. 안데스에서 잔을 나누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총애나 동등한 사람 상호간 우애의 표현이었다(Inca Garcilaso 1995 I, 372). 그러므로 음료를 버린 것은 상대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 된다. 성경 사건과 음료 사건은 둘 다 사실일 경우부터 둘 다 사실이 아닐 경우까지 몇 가지의 가능성이 성립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만남 초기에 서로가 상대에게 예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전혀 생소한 두 문화의 충돌 현장에서 그런 일은 얼마

16) 파트리시아 시드(Patricia Seed)는 말베르테가 아파왈빠에게 읽어준 텍스트는 성경이 아니라 통첩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Matthew Restall 2004, 94).

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관점이다. 그러므로 빠사로와 아파알빠 간의 만남에서 주로 성경 이야기만 회자되는 것 역시 불소통의 한 단면이며 동시에 ‘정복’을 스페인인들의 관점에서 서술해온 증거가 된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그들 간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사실 힘든 일이었다. 때문에 두셀은 12명의 프란체스코회 선교사들과 플라마띠니들 간의 대화를 두고 ‘인디오는 병어리 같았고 스페인인들은 귀머거리 같았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2011, 188-189). 그런데 그 대화에서 플라마띠니들은 선교사들과의 대화나 토론에서 봉착할 난관인 통약 불가능성,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의식했으나 선교사들은 그 같은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Dussel 2011, 190). 전혀 생소한 두 문화의 만남에서 양쪽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플라마띠니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일이다. 선교사들이 비교적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는 해도 고도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현자’인 플라마띠니들에는 그 수준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호의적인 소통을 추구했던 선교사들 역시 당시 유럽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식민 초기 안데스의 혼란상과 관련해 펠리페 3세에게 안데스 맞춤형 통치 방법을 조언하려고 했던 와망 뽀마는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 문화의 그 같은 차이에 주목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때문에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안데스의 숭배 대상인 와까(huaca) 파괴에 앞장섰던 그도 안데스 정서와 스페인 정서의 단절을 들어 티투 꾸시(Titu Cusi) ‘반란’을 정당화했다(Raquel Chang-Rodríguez 1991, 25). 안데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안데스의 매듭문자 끼뿌스(quipus)가 유럽의 글자를 전혀 이해 못했듯이 유럽의 글자 역시 끼뿌스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그 같은 소통의 단절은 이후 식민사회의 여러 갈등을 낳는 한 원인이 되었다. 원주민 사회와 문화에 대한 스페인 측의 이해 결핍은 일방적인 식민 정책 시행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원주민들이 그런 정책에 빈번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 IV. 원주민들 간의 (불)소통

16세기에 나와어로 씌어진 『멕시코 노래 *Cantares mexicanos*』에는 플라스 깔라인들과 우에호징고인들이 스페인인들의 메시까 ‘정복’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Matthew Restall 2004, 46). 그 노래는 메시까인, 플라스 깔라인, 우에호징고인 모두 나와 족이지만 플라스 깔라인, 우에호징고인이 주체가 되어 메시까인과 내전을 벌였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즉 그들이 스페인인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전의 주체였고 스페인인은 부차적인 행위자일 뿐이라는 시각에서 멕시코 ‘정복’을 바라보고 있다. 메시까의 위세에 눌려있던 플라스 깔라인들이 애초부터 스페인인들을 도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519년 스페인인이 테노치티틀란으로 진군하던 당시에는 스페인인들에게 강력하게 맞섰다. 그러던 그들 그리고 우에호징고인들이 스페인인들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꼬르메스 일행과 협력하면 메시까에 맞설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그들과 주체적으로 동맹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스페인인들의 2차 테노치티틀란 공략 때에는 자그마치 20만 대군이 스페인의 동맹군으로 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그 노래와 여러 정황상 원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기본적으로는 자신들 간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안데스에서 도스 에스칼라 사람들은 스페인인들의 도움으로, 즉 아파알빠의 생포와 처형으로 제국의 권력이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으며 만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여겼다. 스페인인들이 원주민들을 이용했다는 일반적 ‘정복사’와는 달리 원주민들은 그 일을 자신들의 내전에 백인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1519년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 꼬르메스는 또또낙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목떼수마 치하의 아스떼까 제국이 심각한 내부 분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꼬르메스는 내륙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메시까 족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상당수의 원주민들을 동맹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스페인인들은 원주민 부족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고 원주민 동맹군의 연합체를 만들면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다름 아닌 원

주민들에게 의지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스페인인들이 원주민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는 많다. 1524년 과테말라에서 페드로 데 알바라도(Pedro de Alvarado)가 키체(Quiché)와 까치켈(Cakchiquel)의 갈등을 이용했고, 프란시스코 페사로도 잉카 제국 '정복'에서 아파왈빠와 와스카르(Huascar) 간의 왕위 계승전쟁을 이용했다. 때문에 안데스에서는 꾸스꼬의 잉카 왕족과 귀족들이 '왕위 찬탈자'인 아파왈빠에 맞서 스페인인을 돕기까지 했다. 또한 잉카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망코 잉카가 1536년 꾸스꼬를 포위했을 때, 잉카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왕까(Wanka) 족이나 까냐리(Cañari) 족 같은 다른 부족들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스페인은 안데스에서의 기반을 상실했을 것이다. 것처럼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정복'할 당시 원주민들 간의 담론은 서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나아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스페인인들은 스페인이라는 소통의 중심점이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일부 왜곡이 있었으나 서로 소통이 되고 있었지만 원주민들은 상호 고립되어 있었다. 안데스 지역에서 스페인인, 잉카인 둘 다 미지의 적을 만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 일은 스페인인들에 비해 잉카인들에게 더 큰 혼란이었다. 스페인인들은 카리브나 중미 지역에서 타자에 대한 경험을 한 상태였고 그 경험을 서로 나누고 있었지만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사로는 안데스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아스떼까 '정복자'인 꼬르떼스를 직접 찾아가 아스떼까 '정복' 이야기를 듣고 또 조언도 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잉카인들과 아스떼까인들 간에는 그런 경험에 대한 소통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 같은 차이점은 '정복' 당하는 결정적인 한 이유가 되었다.

아스떼까 지역이나 안데스 지역 공히 만약 상호 적대적이었던 원주민들이 이후에 벌여질 엄청난 변화를 예견하고 스페인인들을 공동의 주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라면 '정복' 과정은 그 양상을 달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정체성은 좁은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단절되어 있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주민들은 스스로를 특정 공동체나

도시 국가의 구성원으로 여겼지 보다 큰 규모의 인종 집단 일원으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인디오’ 혹은 원주민의 범주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다 (Matthew Restall 2004, 141). 그러므로 그러한 원주민 정체성의 성격이 원주민 분열의 뿌리였고, 침입자인 스페인인들은 이질성을 더욱 조장하려고 애썼다. 원주민들의 그 같은 정체성은 ‘정복’ 이후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민시대 내내 원주민들의 수가 스페인인들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해서 식민자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나단 브라운(Jonathan Brown)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원주민들 사이의 문화적 장벽에서 찾고 있다(2005, 220-221). 언어, 문화, 관습의 차이가 ‘정복’ 이전 시대에 뿌리박고 있던 개별적 정체성, 즉 이질적 정체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56년 분배제도(repartimiento)가 합법화된 이후 식민당국에 맞선 안데스 원주민들의 저항운동은 거의 일상적이 되었지만 극히 소규모의 지역적 움직임에 머무르고 말았다. 안데스 원주민들이 전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던 데다 스페인의 지배가 안데스 농촌 사회를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이한 상황의 소규모 공동체로 파편화시켜 놓았던 것이 그 이유였다.

식민시대 안데스 최대의 사건이었던 뚜빱 아마루 2세의 봉기 실패에도 원주민들 간 분열로 인한 소통의 한계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새 대상(隊商)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는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또한 꾸스꼬 전역의 원주민들을 가담시킬 수 있는 동료 꾸라까들과 공감하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봉기가 실패했던 한 원인은 ‘정복’ 이전부터 이어져온 계층차 부족 내의 경쟁심이었다. 즉 부족 간의 적대감으로 인해 뚜빱 아마루 2세가 원주민 지도자들을 제대로 결집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Jonathan C. Brown 2005, 346-348). 그 외에 서로 입장을 달리 했던 봉기 세력의 내부 분열, 즉 원주민과 원주민 나아가 원주민과 메스피소 간의 내분에서도 봉기 실패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꾸스꼬의 옛 잉카 귀족들을 봉기에 가담시키지 못했다. 1540년대에 까를로

스 1세가 잉카 귀족들에게 세습 귀족 신분을 허용했고 꾸스꼬의 귀족들은 스페인의 안데스 간접 통치 방식을 이용하며 여전히 꾸스꼬 사회의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뚜빱 아마루 2세의 유토피아적 안데스 질서 재창조라는 열망에 동의하면서도 스페인 왕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 봉기 세력과의 소통에는 거리를 두었다. 봉기 실패 후 식민당국이 취한 조치는 『잉카 왕조사』 금서 지정, 잉카왕 전통 의상 착용 금지, 꾸라까의 세습 지위 폐지, 케추아어 사용 금지, 잉카왕을 묘사하는 회화나 연극의 금지 등이었다. 그 같은 처사는 안데스인들의 집단 의식 속에 존재하던 잉카 부활 사상, 즉 식민체제에 항거하는 광범위한 운동에 적어도 잠정적인 결속력을 공급해온 부활 사상을 체계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범안데스 원주민 소통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뿌리를 없애려는 의도였다. 더구나 봉기를 진압한 식민정부는 봉기에 가담했던 끄리오요들에게는 비교적 관용을 베푸는 반면 원주민들은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다.<sup>17)</sup> 그것은 반란의 책임을 원주민과 메스티소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원주민이나 메스티소가 끄리오요와 소통하는 것을 막아 인종 분열을 조장하려는 조치였다.

뚜빱 아마루의 봉기가 티티카카 호수 동쪽 볼리비아의 알띠빨라노 원주민들에게 전해진 결과 그곳에서는 보다 급진적인 민중운동이 일어났다. 그 지역 꾸라까(curaca)인 토마스 아파사(Tomás Apasa)는 조상 뚜빱 까따리(Tupac Catari)의 이름을 빌어 농민들을 이끌면서 뚜빱 아마루 2세와 소통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알띠빨라노 원주민들이 주로 아이마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양 진영은 통역을 통하지 않고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케추아 족이 전통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온 상황에 대해 아이마라 족은 불만이 많았다. 원주민들 간의 그 같은 언어 차이 그리고 해묵은 경쟁 관계로 인해 뚜빱 아마루 2세의 케추아 운동과 뚜빱 까따리의 아이마라 운동의 협력 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두

17) 이 봉기 과정 그리고 봉기 실패로 인해 희생된 인명이 약 10만 명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원주민들이었다.

봉기의 지도자가 처형된 1781년 이후 아이마라 족은 꾸스꼬에서 넘어온 케추아 족 봉기군과 합류해서 라 빠스를 공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부족 간의 전통적인 적대감이 동맹에 분열을 가져오고 그 결과 패배하고 말았다. 알토 페루(Alto Peru)의 급진적인 까따리 파는 보다 보수적인 페루의 아마루 파를 불신했고 때문에 까따리 파 지휘관들과 아마루 파 지휘관들이 식민당국에 서로 밀고까지 하고 있었을 만큼 제대로 된 소통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동일한 해인 1780년 인접지에서 봉기해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봉기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상호 연대의 한계를 노정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패배시킨 군대 역시 소통 단절을 이용한 사례였다. 후안 산토스 아타왈빠(Juan Santos Atahualpa) 봉기가 일어났던 해인 1742년에 식민지 군대의 첫 두 연대가 리마와 꾸스꼬에서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1760년경에는 4000명이 넘는 군인이 76개 연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군대와 안데스 일반 대중은 바로 인종과 언어로 분리되었다. 식민 군대의 모집은 주로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때문에 그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스페인화된 사람들로서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고지대 지역의 원주민들과 자신들을 전혀 동일시하지 않았다. 즉 스페인은 언어와 지역으로 원주민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소통이 단절되도록 했고 그 상황을 원주민의 봉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식민시대 원주민들 간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은 꾸라까들의 역할이다. 세습 지위를 누리는 원주민 지도자로 소속 공동체 내에서 전통적인 권위를 누려온 꾸라까들은 잉카 관료 조직의 핵심 존재이자 잉카 지배 계급과 안데스 대중 사이에 연계망을 제공하는 인물들이었다. ‘정복’ 후에도 그들은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식민자들 역시 그들을 안데스 대중과의 소통 매개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측에서는 그들에게 스페인어와 법률을 배우고 기독교도가 되도록 요구하며 그들을 통해 안데스 통치 체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18세기 이후 스스로 잉카왕의 혈통임을 내세우는 꾸라까들의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법률 상 꾸라까



의 권위는 원주민의 혈통적 유산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했기에 꾸라까로 승  
 인받으려면 그 계보가 증명되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식민관리들은 법적 기  
 준에 맞지 않더라도 협조적인 원주민을 꾸라까로 임명했다. 그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대중과의 소통보다는 식민관리와의 소통에 더  
 치중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식민통치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설득, 강제하며  
 아래로부터의 불만이나 위협 가능성을 완화시키고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했  
 다. 식민통치자와 안데스 대중의 매개자인 꾸라까와 식민통치자 간의 소통  
 이 잘 이루어지면 식민 질서가 비교적 안정되게 잘 작동했다.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상실을 스페인 식 생활 방식의 모방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꾸라까들  
 은 흔히 스페인인들과 유사하게 행동해서 원주민들은 물론 스페인인들로부터  
 터도 인디오 라디노(indio ladino), 즉 백인화 된 원주민 이라는 경멸적인 이  
 름으로 불렸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양자의 소통을 조율하는 역  
 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불)소통의 매개자인 그들이 식민당국자가 아니라 일반 대  
 중과 더 교감하게 되면 식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했다. 앞서 언급했지  
 만 뚜빱 아마루 2세나 뚜빱 까파리도 꾸라까였으며, 안데스 식민통치의 문제  
 점을 지적했던 와망 뽀마 역시 라디노였다. 18세기 부르봉 개혁으로 인한 중  
 세에 불만을 품은 꾸라까들이 안데스 대중과 연계한 결과가 바로 뚜빱 아마  
 루와 뚜빱 까파리 봉기였던 것이다. 또한 멕시코의 믹스톤(Mixton) 봉기, 페루  
 의 따끼 옹고이 운동, 브라질의 상띠다지(Santidade)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도  
 바로 그들 중간 계층이었다. 특히 안데스 전통 신앙에 근거해 식민지배에 저  
 항했던 따끼 옹고이 운동 지도자들은 유럽적인 것과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한  
 반면 원주민과 안데스 신령 간의 소통을 재개시키려고 했다. 때문에 그들은  
 스페인인이나 교회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나아가 의복, 이름, 음식 등 모든  
 외래적인 것을 버리는 대신 안데스 전통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민  
 통치를 뒤흔들어 놓았다. 것처럼 소통의 허리 역할을 담당했던 꾸라까들이  
 누구와 소통을 추구했느냐에 따라 식민 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 V. 마치며

본문에서 스페인인들 간, 스페인인과 원주민들 간 그리고 원주민들 간 소통의 문제를 모두 살펴보긴 했지만 소통 문제에 있어서 제일 관심을 끄는 핵심 주체는 아무래도 스페인인들과 원주민이다. 그리고 스페인의 아메리카 진출 과정에서 양자 간 소통의 가장 큰 장벽은 두 문화 간의 이질성이었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소통의 어긋남이 많았다. 여러 기록과 민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듯, 그 같은 불소통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는 문자였다. 당시 스페인은 신의 책, 즉 주변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려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반면 원주민들은 여전히 신의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파악하려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끼뿌스와 알파벳의 이질성만큼이나 두 문화는 세상을 대하고 파악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고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 역시 서로 달랐다. 그래서 문자 문제, 책 문제, 나아가 언어 문제와 관련해 그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당시 스페인인들이 그 같은 차이를 무시한 채 소통 방식에 있어서 일방적 경향을 드러냈던 배경의 일부를 짚어보고 또 그 같은 차이로 인해 양측 간 소통 이면에서 나타났던 불소통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하자.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고선지 장군이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아랍인들에게 전파된 제지술이 13세기 말 서유럽에까지 도달함으로써 유럽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종이의 생산으로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책이 대량으로 보급됨으로써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전통적 지혜 담지자로서의 노인 대신 문자 그리고 책에 대한 신뢰와 숭배가 생겨났다. 그 같은 배경에서 문자문화는 무문자문화보다, 알파벳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 문화는 그렇지 않은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유럽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알파벳을 가진 언어 특히 라틴어에 대한 우월성이라는 신념 역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신이라는 실체는 라틴어를 통해서만 적절하고 참되게 지칭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492년 네브리하(Nebrija)의 문법서가 등장하고 ‘언어는 제국의 동반자’라는 옛 말이 다시 한 번 상기되면서 민족어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었다. 그런 스페인인들에게 있어서 문자도 책도 없으며 라틴어 혹은 그에 상응할 만한 ‘진정한’ 언어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콜럼버스는 카리브 원주민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스페인에 데려갔고, 르 클레시오(Le Clézio)에 따르면, 멕시코 정복은 콜럼버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말하는 능력 덕분이었다(Matthew Restall 2004, 137). 것처럼 언어나 문자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면에서 유럽인이 원주민보다 진보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일방적 믿음이 소통 이면의 불소통을 야기했고 문화 차이에 의한 소통의 어긋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로마누스 폰티팩스 교서와 통첩문에 담긴 입장이 그랬고 초기 프란체스코회 선교사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신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한 발베르테 신부와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던 아파왈빠의 만남에서는 서로 상대의 뜻을 읽지 못하는 불소통 속에서 위협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소통이 있었다면 목떼수마와 꼬르메스의 경우에는 서로 소통한 듯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불소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Matthew Restall 2004, 94). 그와 마찬가지로 이후 식민시대 양 측의 입장에서도 그 같은 소통 속의 불소통, 불소통 속의 소통은 여전했다. 사실 ‘정복’ 초기 원주민 귀족 계층에 대한 스페인어와 문자 교육은 원주민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원주민들은 그 글자라는 것을 자신들의 과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나아가 후세들에게 전통을 전달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어의 식민화에 저항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Mignolo 2003, 207). 그리고 식민사회에 대한 해석 역시 스페인인들과 원주민 사이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식민시대에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가 완전히 ‘정복’되었고 원주민들이 모두 왕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고 보았으나 원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식민시대 당시의 각종 조직들도 스페인인들은 식민통치 기구로 본



- 기』, 김원중 옮김, 나남.
- 엔리케 두셀(2011),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 박병규 옮김, 그린비.
- 윌터 J. 옹(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 Andrien, Kenneth J. and Adorno, Rolena(ed.)(1991), *Transatlantic Encounters: Europeans and Andeans in the Six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tzanos, Juan de(2004). *Suma y narración de los Incas*, Madrid: Ediciones Polifemo.
- Bierhorst, John(2003), *Cuentos folklóricos latinoamericanos: fábulas de las tradiciones hispanas e indígenas*, Traducción de José Lucas Badué, Nueva York: Random House.
- Brown, Jonathan C.(2005), *Latin America: A Social History of the Colonial Period*, 2nd ed., Wadsworth.
- Burga, Manuel(2005), *Nacimiento de una utopía: muerte y resurrección de los Incas*, 2a ed., Lima: Editorial de la UNMSM.
- Chang-Rodríguez, Raquel(1991), *El discurso disidente: ensayos de literatura colonial peruana*, Lima: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 Elliott, J. H.(2006), *Empires of the Atlantic World: Britain and Spain and America 1492-1830*, Yale University Press.
- Flores Galindo, Alberto(1994), *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4a ed., Lima: Editorial Horizonte.
- Garcilaso de la Vega, Inca(1977), *Historia general del Perú*, tomos I, II, III, 2a ed., Lima: Editorial Universo S.A.
- \_\_\_\_\_(1995),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tomos I, II, Edición, índice analítico y glosario de Carlos Aranibar,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Gomara, López de(1977),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 Lima: Editorial Universo.
- Guamán Poma de Ayala, Felipe(2005), *Nueva corónica y buen gobierno*, Edición y prólogo de Franklin Pease G.Y.,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Krickeberg, Walter(1999), *Mitos y leyendas de los Aztecas, Incas, Mayas y músicas*,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León-Portilla, Miguel(1992), *The Broken Spears*, Boston: Beacon Press.
- Meneses, Gregorina(1992), *Tradicón oral en el imperio de los Incas: historia, religión, teatro*, Costarica: Varitec.
- Merino de Zela, Mildred(comp.)(1999), *Ensayos sobre folklore peruano*, Lima: Universidad Ricardo Palma Editorial Universitaria.
- Mignolo, Walter D.(2003), *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 U.S.A.: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_\_\_\_\_(2005), *The Idea of Latin America*, U.S.A.: Blackwell Publishing.
- Millones, Luis(2000), *Dioses familiares*,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 Ossio A., Juan M.(ed.)(1973),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 2a ed., Lima: Ignacio Prado Pastor.
- Restall, Matthew(2004), *Seven Myths of the Spanish Conqu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rbano, Enrique(comp.)(1993), *Mito y simbolismo en los Andes: La figura y la palabra*, Cusco: Centro de Estudios Regionales Andinos “Bartolomé de las Casas”.
- Wachtel, Nathan(1976), *Los vencidos: los indios del Perú frente a la conquista española(1530-1570)*, Antonio Escobotado(trans.), Madrid: Alianza Editorial.

## 강 성 식

서울대학교

kongyonga@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2일

# The (Mis)Communications and Ruptures in the 'Conquest' of America

**Seong-Shik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Seong-Shik (2012), The (mis)communications and ruptures in the 'conquest' of America.

**Abstract** This article considers the communication matters in the process of the 'conquest' of America. The conquistadors sent exaggerated and distorted reports to the crown of Spain on their activities, and the wealth and the inferiority of America. Because of those reports many false beliefs were generated in Europe. On the other hand, the colonialists needed to modify the orders of crown and, in some cases, they 'obeyed but not complied' the institutions. Because the 'conquest' of America was a series of sudden crashes between absolutely strange cultures, the miscommunications were nearly inevitable. Although Spain made efforts for communications with amerindians, in many cases the spaniards' communications to native americans were unilateral and incomplete. And some scholars have the opinion that the arguments that amerindians believed the spaniards to be gods could be misinterpretation of their expressions of courtesy and welcome. The amerindians' identities were highly localized and alienated. Moreover the native tribes were sometimes hostile to each other and the conquistadors took advantage of their rivalry. The rebellions of Tupac Amaru II and Tupac Catari failed because, in part, of th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indios ladinos' o 'curacas' played the role of inter-mediators between colonialists and native masses. While they were in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lonialists, the colonialism operated well, but when they sympathized with the general public, they became the leaders of rebellions.

**Key words** conquest, (mis)communication, distortion, exaggeration, rupture